

2017 그리스 선진기관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

I

연수개요

연수목적

- 지방화 시대 발전정책에 필요한 국회, 항만청 등 그리스 선진기관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 정책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연수내용

- 그리스의 관광, 도시개발 정책 벤치마킹
- 그리스 국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간담
- 관광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현장 견학
- 아테네 국제 컨퍼런스 센터 방문 등 관련지식 습득
- 방문국 관광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현장 견학
-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연수단 : 총 17명

- 전국 시·도의회 의장 7명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북)
- 시·도의회 담당직원 7명, 협의회 사무처 직원 3명

연수국 : 그리스

연수기간 : 2017. 10. 26(목) ~ 10. 31(화), 4박 6일간

- 출발 : 2017. 10. 26(목) / 대한항공(KE931) 13:35 인천 출발
- 귀국 : 2017. 10. 31(화) / 대한항공(KE932) 17:00 인천 도착

■ 주요기관 방문 : 6개 기관 · 현장 방문 진행

- 기관방문 : 아테네 국제 컨퍼런스 센터, 그리스 국회의사당
- 현장견학 : 아테네 키피시아스 링 로드, 고린도 운하, 피레우스 항,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

방문일시	방문기관(시설) 및 주요 내용
10월 27일(금) 10:00	① Megaron Athens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아테네 국제 컨퍼런스 센터) ☞ 국제 회의 장소 탐방 등 벤치마킹 사례 탐구
10월 27일(금) 15:00	② 그리스 국회의사당 ☞ 국회 기능, 우리나라와의 관계 탐구, 현장 탐방 등
10월 28일(토) 09:00	① 아테네 키피시아스 링 로드 ☞ 역세권 개발사례 현장 탐방 등
10월 28일(토) 13:00	② 고린도 ☞ 고대 유적 보전 및 도시재생 현장 탐방 등
10월 30일(월) 10:00	① Panathenaic Stadium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 ☞ 제1회 근대 올림픽의 시작 장소 탐방 등 스포츠 시설 벤치마킹 사례 탐구 및 평창올림픽 홍보
10월 30일(월) 14:00	② Port of PIRAEUS (피레우스 항) ☞ 세계 3대 규모의 항 탐방 등 해양산업 벤치마킹 사례 탐구

■ 정책연수 루팅 맵

- ①인천공항 출발(1.26 / 13:35) → ②아테네(2박) → ③스파르티(1박)
→ ④아테네(1박) → ⑤인천공항 도착(1.31 / 17:00)

II

주요기관 · 현장 방문

1. 아테네 국제 컨퍼런스 센터

□ 일 시 : 2017. 10. 27(금) 10:00

□ 센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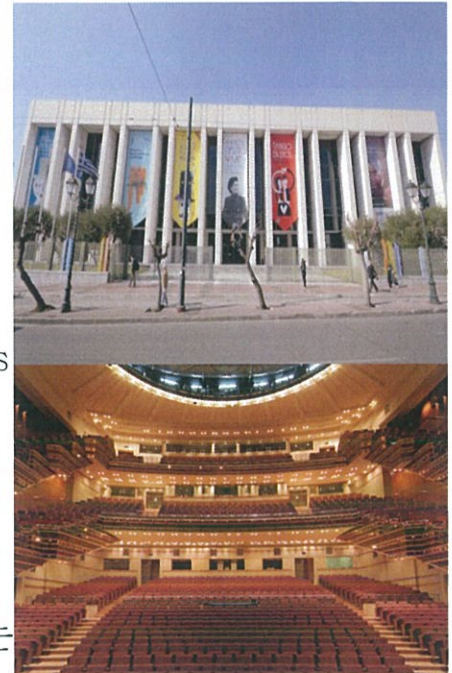
- 이름: Megaron Athens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 주소: Vass. Sofias & Kokkali 115 21 Athens
- 전체 규모: 143,000m²

□ 견학 내용

- 1991년 오픈한 이곳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시설로 31개의 미팅룸을 비롯하여 4개의 Hall, 외부 전시 공간 및 경관이 좋은 정원과 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외부 공간인 1,520m²는 내부에서 외부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개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개방성을 중시한 설계를 하였음
- 센터는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에 의해 건설되었음 이곳은 아테네의 도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도심 내 이정도 규모의 전시·컨벤션 룸을 가진 도시는 손에 꼽힐 것임
- 우리는 80명이 넘는 전임 기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전시·컨벤션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20여개의 대규모 국제컨퍼런스를 지원하였음

□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도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심 내 국제회의 장소가 부족함
 - 코엑스 36,007m² (연면적 46만m²), 킨텍스 108,566m²
- 도심 내 민간 개발시 일부 지역을 전시·컨벤션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활성화 정책 적극 시행 필요



2. 그리스 국회 방문

□ 방문일시 : 2017. 10. 27(목) 15:00~

□ 설 명 자 : 파노스 (국회 총무과 직원) 등 관계자 3명

□ 주요내용 : 국회 및 그리스 지방행정 등 일반사항 설명 및 국회 시찰

○ 국회 일반현황

- 형태/구성 : 단원제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4년
- 주요권한 : 입법권, 대통령 선출권, 총리 후보자 추천권, 대통령 및 각료 탄핵권, 내각 불신임권, 국민투표 실시 요청권 등
- 주요정당 : 신민당(ND), 사회당(PASOK)2), 공산당(KKE), 좌파연합당(SYRIZA) 등
- 비례대표 : 총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 비례 대표제를 채택

○ 그리스의 지방 행정

- 구 성 : 13개의 지방(Region)으로 나누어지며 13개의 지방은 다시 54개의 도(Prefecture)로 구성, 각 도에는 시 900개와 지역사회 133개가 있음. 시는 주민이 1만 명 이상이고 지역사회는 1만 명 이하
- 책임자 :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 지방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이 조화되도록 도모하는 일을 함, 지역사회장은 직접투표로 선출

○ 그리스의 대통령

- 선 출 : 의원 2/3의 찬성으로 선출
- 임 기 : 5년,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권 한 : 총리 지명 및 총리가 제청한 각료 임명권,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군사 통수권 및 전쟁 선포권, 대법원판사 임명권, 법률 공포 및 조약 비준권, 의회 동의하의 국민투표 실시권, 총리 동의하의 대 국민 성명 발표권 등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

○ 그리스의 행정부

- 구 성 : 대통령 중심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는 내각이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 행정 부처는 18부임
- 총 리 : 다수당의 총재로서 대통령이 의회의 추천에 따라 총리로 지명

□ 브리핑 내용

- 고대 그리스 사회의 정치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폴리스와 아고라임
-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말로서 섬이 많은 자연 환경 때문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그리스에서 지역별로 국가의 형태를 이룬 정치공동체를 폴리스라고 한 것임.
- 그리스 시절 폴리스는 약 1천개가 넘었으며, 각 도시에 약 5천명에서부터 2만명까지 다양한 인구 수를 지니고 있었음, 이런 폴리스는 각 폴리스마다 독립적인 문화가 있었고, 다른 문화를 '바르바로이'라고 배척했음
-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혹은 '아고라 정치'라고 함
-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소크라테스의 '우둔한 대중')라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음
- 이것은 그리스 민주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줌, '한곳에 모여' 정치를 하기에 '한 방에' 잘못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임
- 플라톤은 광장에서 일어나는 '포폴리즘' 행태가 민주주의 가장 큰 결점이라고도 이야기함
-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 라며 'DEMOCRACY' 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냄
- 민주주의를 뜻하는 이 영어단어의 어원은 Demo(민중),와 Kratos(지배)를 합친 단어 'Demokratos(민중에 의한 지배)'에서 나오는 것임
- 이렇듯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현대 그리스 정치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아 현대에 이르게 됨

□ 시사점

-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오랜 민주주의를 거치며 발전하여 오면서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증명되었고, 현재까지도 정치적 역동성이 왕성함.
- 지방의회 또한, 현재도 다양하고 복잡한 권력구조와 정부제도하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
 - ⇒ 최근 한국은 대통령 탄핵, 대규모 시위, 적폐청산 등 정치적인 이슈 및 혼란이 있으나 이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합성된 또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며 발전적 방향의 정치적 과도기로 보임
 - ⇒ 하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역설하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한계인 대중민주주의,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은 국민 모두 상기하며 숙련된 민주주의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함
 - ⇒ 또한 그리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내용과 각종 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내용 면에서 유사성이 비교적 높아 이를 활용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문화적인 내용은 적극 적용 필요

□ 관련 사진



3. 아테네 키피시아스 링 로드

□ 일시 : 2017. 10. 28(토) 09:00~

□ 장소 : Athens Ring Road, Kifissias Interchange



□ 아테네 키피시아스 링 로드 개요

- 역세권의 혼잡한 통행, 교통 혼잡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등의 이유로 Melissia 시정부에서 개발한 고리모양의 인터체인지
- 아테네의 주요 교통 통로 중 하나인 키피시아스 애비뉴 (Kifissias Avenue), 아테네 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으로 갈 수 있는 그리스 최대 고속도로인 Attiki Odos(65km), 아테네 시내를 연결
- 인근 대중 교통 수단시설(지하철, 교외 철도 및 버스)과 연결되어 교통량을 최대 60%까지 줄이는 효과를 봤음

□ 시사점

- 그리스 아테네는 유적지가 매우 많아 건축물의 형태, 색상 등을 정부에서 규정할 정도로 타국가 도시에 비해 도시계획이 극히 제한적임
- 주거지도 지하주차장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으로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통행 제한 등 문제가 많음
- 그리스 정부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건상 쉽지 않은 실정임
- 하지만 도심의 교통문제 만큼은 링로드(인터체인지) 및 고속도로 확장, 신설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소해 나가고 있음
- 아테네 키피시아스 링 로드는 한강 이남의 올림픽대로, 주요 도시를 거쳐가는 경부고속도로, 시내로 가는 강남대로 등 여러 도로가 얹혀 있는 한남대교 남단과 매우 유사한 지리적 여건을 지녔음
- 신설되는 도심 역세권 개발이나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례를 적용하여 정책에 적극 접목할 필요가 있음

4. 고린도

□ 일 시 : 2017. 10. 28(토) 13:00~

□ 장 소 : 고린도(고대 유적지), 고린도 운하

□ 고린도(코린트) 개요

○ 현 황

- 그리스 남부 코린티아 주의 주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이자 현대의 도시

○ 위 치

- 그리스 중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 아테나이로부터 78km 남서쪽이고 사로니코스 만과 코린트 만을 가르는 코린트 지협에 위치, 고대에는 이 지협의 해안을 따라 험준한 암초를 피해 선박이 돌아갔으나 지금은 운하가 놓여있음

○ 역 사

- 기원전 9세기 도리아인이 건설, 크게 번창했으며 로마 제정 시대엔 아카이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절정에 이르러 기원전 500년경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인구 30만의 대도시였음. 기원전 146년 로마제국에 의해 파괴됐다가 기원전 44년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됐음. 52~54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웠음. 1205년 십자군이 비잔틴 제국을 축출하고 빼앗았음. 이후 오스만튀르크, 베네치아, 터키, 영국의 지배를 거쳐 1822년 그리스에 귀속. 1858년 지진으로 파괴돼 북동쪽 3km 떨어진 현재의 위치에 재건됐음.



□ 고린도(코린트) 운하

○ 세계 3대 운하(고린도, 파나마, 수에즈) 중의 하나

○ 서쪽 바다인 이오니아해와 동쪽의 에게해를 연결하는 이 운하의 길이 6.2Km, 폭 25m(바닥은 21m), 수심 8~10m, 다리에서 수면까지의 높이가 약 80m로 고대 고린도인들이 계획하였으나 기술과 재정문제로 실패하고, 40년경에는 이집트인들이 고린도만의 수위가 사로닉만의 수위보다 높아

운하를 만들 경우 예기나가 침수될 것이라하여 중단하기도 했다. 67년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수천명의 죄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시도했으나 실패를 거듭, 19세기말에 와서야 완성이 되었다. 1881~1893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프랑스 기술진에 의해 완공되기 전에도 그리 크지 않은 배는 땅위로 올려 올코스 네온 (배를 견인하는 마차)를 이용하여 배를 옮겼으며 운하의 서쪽 끝에 가면 그 당시 이용했던 길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길을 Diolkos라 하였으며 폭은 3~5.5m이고, 주로 선실이 없는 전함을 옮겼다. 상선일 경우에는 겐그레아 부두에서 선내의 짐을 하역한 후에 배를 가볍게 하여 고린도만의 레헤온 항구로 옮겼음

□ 시사점

-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린도는 성지순례 코스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도시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도시임
- 고린도가 쇠퇴한 이유는 타 국가의 침략, 고린도인의 문란함, 자연재해(지진) 등 여러 요인이 있고, 이는 타도시의 쇠퇴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 대한민국 역시 북한의 핵도발, 항시 도사리고 있는 금융위기, 자연재해(각종 화재 및 지진),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따른 세대, 계급간 갈등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음
- 국가는 정치·경제·문화·안보 등 모든 분야에 국민 개개인이 안전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사진



5.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 (Panathenaic Stadium)

□ 방문일시 : 2017. 10. 30(월) 10:00

□ 방문내용 : 현장 시찰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 시설개요

- 시설명 :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 (Panathenaic Stadium)
 - 칼리마르마로("아름다운 대리암으로 장식한"이라는 뜻)로도 알려져 있는데 세계에 있는 주경기장 중에 전부 대리암으로 만들어진 곳은 이 곳이 유일
- 소재지 : 그리스 아테네
- 기 공 : 기원전 566년
- 보 수 : 기원전 329년
- 확 장 : 1870, 1895~1896 (1896 하계 올림픽), 2000~2004 (2004 하계 올림픽)
- 사용처 : 1896년 하계 올림픽 (1896년), 2004년 하계 올림픽 (2004년)

□ 시설역사

- 고대에 이 경기장은 아테나를 기리기 위한 판아테나이아 대회(panathenaia)의 경기장을 쓰였음. 고전기에 이 곳 경기장 좌석은 나무로 되어 있었음
- 기원전 329년, 집정관 리쿠르고스가 경기장을 대리석으로 새로 지었으며, 140년,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경기장을 증축하면서 좌석을 5만개로 늘렸음
- 근대에 들어, 에방겔리스 자파스가 올림피아 경기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이 고대 경기장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데 자금을 냈고 자파스가 후원한 자파스 올림픽이 1870~1875년에 이 경기장에서 열렸음
- 1895년에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은 최초 근대올림픽인 1896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재보수 됨, 고대의 U-자형 모델을 따라서 규격에 맞추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음, 현재 대리석 계단 50개에 따라서 앉으면 8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함

□ 최근 현황

- 최근 그리스 운동선수들이 외국에서 경기를 한 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쓰이는 장소가 되었으며 유로 2004에서 우승한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곳으로 오기도 하였음, 1997년에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반젤리스가 개막 기념 공연을 하기도 하였음
- 2004년 하계 올림픽 때 양궁 경기장으로 쓰였으며 마라톤이 끝나는 지점이었음
- 드물게, 음악 공연을 하는데 쓰이기도 했음, 2009년 7월 1일, 사키스 루바스가 환경보호 콘서트를 했는데(이 날은 그리스의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한 첫째날) 표가 모두 팔렸으며 5만명이 넘는 관객이 들어왔으며 이 수는 경기장에서 열렸던 콘서트 중 가장 많은 관객이 들어온 것이며 역대 그리스 음악가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인 수이기도 함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 방문 당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인수 리허설이 진행되어 관계자 및 관람객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브로셔(500부) 및 배지(500개) 배부

□ 관련사진



6. 피레우스 항 (Port of PIRAEUS)

- 방문일시 : 2017. 10. 30(월) 14:00
- 설 명 자 : 야크 마띠 (항만 관계자)
- 설명내용 : 항구 현황 및 역사

○ 일반현황

- 피레우스 항구 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지중해와 유럽에서도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임
- 피레우스 항구는 고대부터 아테네 항구로 사용되었고 현재 피레우스 항은 지역의 최대 고용주이며 피레우스 항만당국 (Piraeus Port Authority SA , PPA)이 운영하고 있음.
- 연간 이용객은 약 1,860만명으로 2009년부터 화물 컨테이너 취급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332만 TE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2016년 567만 TEU
- 취급물량으로 2015년 100대 컨테이너 항 중 피레우스 항은 유럽에서 8위, 지중해에서 3위를 차지함

○ 역사

- 기원전 3천년 전까지 피레우스(Piraeus)는 해마다 해수로 넘쳐나는 본토와 연결된 저지대에 위치한 섬이었음
- 점차 수위가 낮아지고 홍수가 중단되어 피레우스를 육지로 연결시켜 작은 항구를 형성하게 됨
- 기원전 2천년 피레우스에 배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요새화하였고, 아테네인들은 기존에 팔레론에 위치했던 해군과 함선을 이곳으로 옮겼음.
- 이는 기원전 480년 아테네 함대를 주력으로 한 그리스 연합해군이 살라미스 해협에서 우세한 페르시아 해군을 괴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듬해 아테네 승전장군인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는 강력한 아테네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 중대한 해군 및 상업 항구로 만들기로 했고 BC471에 완료 되었음

- 그러나, BC 4세기 후반 장기간의 쇠퇴를 시작함, 항구는 가끔 비잔틴 함대를 위해 사용되었고, 도시는 오스만투르크의 점령에 거의 쇠퇴하였음
- 19세기에, 특히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다시 성장하였음
현대의 피레우스는 번잡한 대도시로, 수도 아테네 도시권의 일부분을 이루어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거대한 해운 및 상공업 중심지임

○ 현재 항만 상황

- 2002년에 PPA와 그리스 정부는 양허 계약을 체결했음. 그리스 정부는 피레우스 항의 건물 및 시설을 PPA에 40년간 임대하였음
- 2008년에 양허 계약 기간은 40년에서 50년으로 수정하였음
- 2009년 말 그리스 정부 부채 위기가 시작된 이후 그리스 정부는 국유 자산을 민영화하기로 계획하였음. 약 500억 유로의 자산이 대상인데 이중 하나가 피레우스 항구였임
- 2009년 10월 그리스는 컨테이너 항의 절반을 PPA에서 중국 해양 해운 회사(COSCO)에 35년간 임대 계약하였음. COSCO는 그리스에 매년 1억 유로를 지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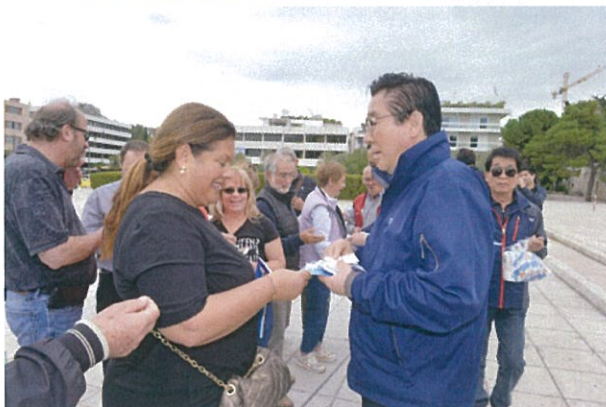
□ 시사점

- 세계 최고 해운업 국가답게 항구 또한 최신식이고 규모 또한 방대하였음
- 하지만 정작 조선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국 중국의 해운회사에 항구의 절반을 임대하였을 뿐아니라 PPA의 지분 절반 또한 중국 해운회사에 넘겨준 상태임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는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이라는 거대 항구를 가지고 있음, 조선업 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 그리스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프라를 활용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및 해운업 재건방안 마련 필요

□ 관련사진



Ⅲ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활동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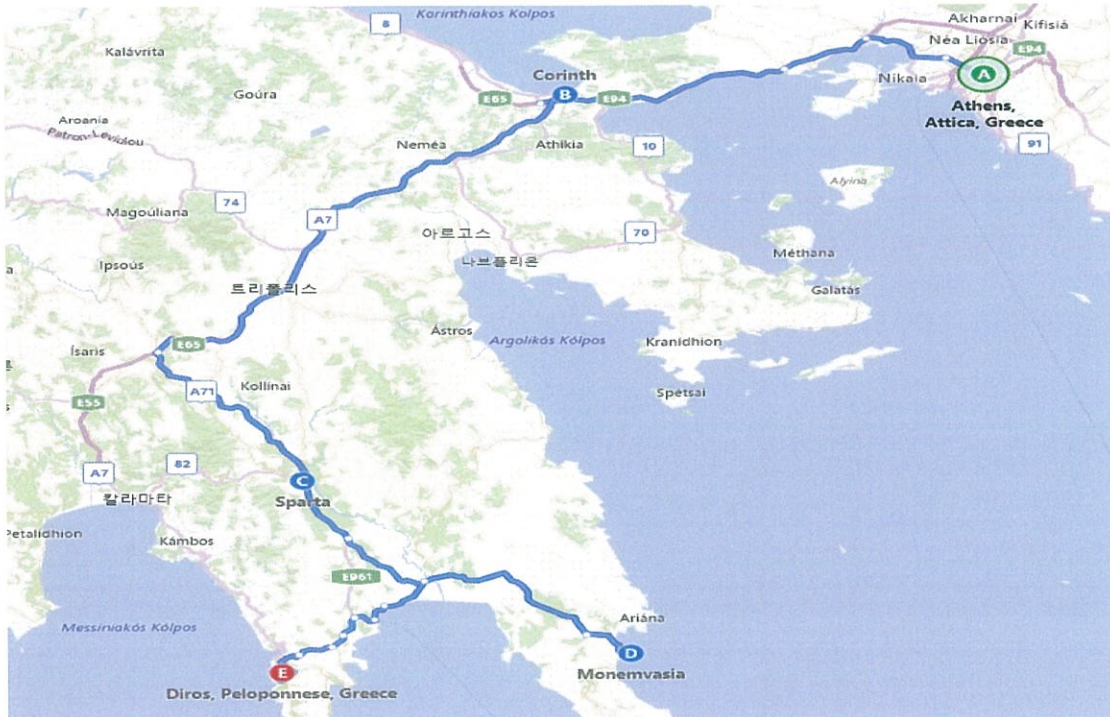
향후 보완사항

□ 선진기관 벤치마킹의 실질적 효과 제고 필요

- 전체일정 고려한 공식기관 방문 일정 추진 판단
- 방문기관과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방문성과 극대화
 - 연수 前, 방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 방문목적, 규모 등을 방문기관에 사전제공, 실질적 질의·응답 유도 필요
 - 주관 여행사와는 별도로 공신력 있는 기관(대사관 등)의 협조 필요

□ 당면 현안사안 토의 및 체계적 홍보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고려

- 당면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 교류 및 해결책 모색 등 일정 추가
- 국내 개최 국제행사 홍보와 더불어 관광상품 등 마케팅 활동 연계



붙임 숙박비 인보이스 1부. 끝.

그리스(GREECE)안내

Ε 찬란한 고대문명과 신화의 나라
 신들의 제왕 제우스(zeus), 바다의 신 포세이돈 (poseidon), 사랑의 신 에로스(eros) 등 고대 그리스 신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 지중해의 질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으로 지중해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그리스에서 그리스만의 특별한 문화를 경험해 보자.



지리

유럽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2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리적 형태를 띄고 있다. 현재 도시화로 인하여 삼림자원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섬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햇빛이 뜨겁지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그 열기를 식혀준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로 여름의 습기로 인한 불쾌지수의 영향은 없으며 저녁에는 시원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인들은 보통 저녁 늦게까지 많은 활동을 한다.

여행시에는 가벼운 옷차림이라고 할지라도 저녁때 입을 스웨터나 잠바가 필요하며 가을은 우기이므로 우의를 준비해야 한다.

사회

언어 - 그리스어를 말하지만, 많은 그리스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벽촌에 가서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독일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리스어는 4000년 동안 구전되었고, 3000년의 문자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대 유럽어이다.

인구

2003년 현재 총인구는 약 1,070만명인 바, 인구 구성은 연소층(0~14세) 21%, 청소년층(15~39세) 36%, 장년층(40~59세) 25%, 노년층(60세이상) 48%로서 인구증가율은 0.29%이다. 인구분포는 평지(국토면적의 약 40%)인 대도시 및 해안지방에 집중되어 있음. 아테네 수도권(인근 피레우스 포함) 지역에 약 350만명, 북부지역의 테살로니키시에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종교

그리스는 종교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국민의 98%가 그리스정교 (Eastern Orthodox Church of Christ)를 신봉하고 있음. 헌법에는 그리스정교를 Prevailing Religion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교와 다름 없다.

언어

오늘날 그리스에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구어체(Popular Language)와 고전 그리스어에 가까운 문어체(Purified Language)의 두가지 언어가 병행되고 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국가에서 관장하며 모든 국민은 의료혜택과 연금을 받는다.

모든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IKA(국가사회보장기관)에 가입해야 하며, 매달 봉급의 43.86%(피고용자 15.90% + 고용주 27.96%)를 납부하고 퇴직후 연금으로 받게된다.

시차

-썸머타임 실시기간 : 한국시각=아테네시각+6시간(3월말-10월말)

-썸머타임 미실시기간 : 아테네 시각 + 7시간(11월-3월말)

통화

통화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01월부터 사용되었다. 주화는 1, 2, 5, 10, 20, 50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100유로 이상의 고액 지폐는 사용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최고 100유로짜리로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 가게에서는 USD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유로로 환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은행 근무시간 : 월-목 : 08:00-14:30, 금요일 : 08:00-13:30

축제

- 1)1월 1일 : 신정
- 2)1월 6일 : 성 세오파니아 축일
- 3)3월 10일 : 사순절(매년 달라짐)
- 4)3월 25일 : 독립기념일
- 5)4월 25일-28일 : 부활절(매년 달라짐)
- 6)6월 16일 : 성령강림일(매년 달라짐)
- 7)8월 15일 : 성모승천일
- 8)10월 28일 : 현충일
- 9)12월 25-26일 : 성탄절

☐ 일반현황

- 면 적 : 131,957km²(본토 81%, 도서 19% 한반도의 3/5배)
- 인 구 : 1천1백만명
- 수 도 : 아테네(Athens, 인구 400만명)
- 민족구성 : 희랍인(98%), 터키인(1%), 기타(1%)
- 공 용 어 : 그리스어

☐ 정 치

- 정치형태 : 내각책임제
- 의 회 : 단원제(의석수 300명)
- 대 통 령 : 프로코피스 파블로풀로스('15. 3 취임)
- 총 리 : 알렉시스 치프라스

☐ 경 제

- G D P : 1,946억미불 (2016년기준)
- 1인당 GDP : 17,806미불 (세계43위)
- 교역규모 : 산업구조 : 서비스(80%), 광공업(15%), 농업(5%)
 - ▶대한국 교역규모('12) : 551.4억 달러 (2012년 기준)
 - 수출 : EUR 209.5억 (전년대비 % 증가)
 - ※ 주요수출항목: 철강, 모피제품, 담배, 석유, 석탄, 펄프, 구리 등
 - 수입 : EUR 341.9억 (전년대비 % 감소)
 - ※ 주요수입항목: 석유, 의약품, 전기기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등
- 경제성장률 : 8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나 최근 회복세

☐ 양국관계

- 외교수립 : 1961. 4. 5(대북수교 : '01. 3. 8)
- 교역규모 : 18.8억불(2005年度)-약17억불 무역흑자
 - 수 출 : 17억 9,288 만불(선박,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류 등)
 - 수 입 : 9,275만불(나프타, 잎담배, 가공식품, 모피 등)
- 진출기업 :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13개사
- 투자현황 : 4건 5.4백만불(그리스 對韓투자 : 4건 2.2백만불)
- 교민현황 : 약290명(유학생, 선교사, 여행업, 무역업 등)

□ 그리스 행정구역

○ 그리스는 1987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10개의 지방(영:Region, 그:περιφέρει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3개 지방과 1개의 자치 지방(Mount Athos)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 지방 중 9개 지방은 육지에 위치해 있고,

4개 지방은 섬에 위치해 있다.

13개 지방 안에는 51개 도(영: Prefecture, 그: νομός)가 있고,

51개 도 안에는 900개의 시(영: Municipality, 그: δήμος)와 133개 지역(영: Community, 그: κοινότητα)이 있다.

그리스 전국은 13개 지방 및 1개자치 지방, 51개 도, 900개 시, 13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Region의 책임자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중앙정부 정책의 이행과 중앙·지방간 정책조화를 도모한다.

Prefecture, Municipality(주민 수 10,000명 이상),

Community(주민 수 10,000명 이하)의 장은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그리스인의 생활

1. 세계 1위의 해운 산업, 바다는 그리스인의 삶의 터전

○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갖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음. 그리스의 해운 수입은 2005년에 145억 유로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는 최대 수입원의 하나가 됨.

○그리스는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높은 해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노후선대를 싼 값으로 매입하면서 국제 해운 산업에 있어 기적적인 발전을 이룸. 2000년대에는 선주들이 새로운 배를 본격적으로 발주함에 따라 기존의 Tanker나 Bulk Carrier뿐 아니라 LNG 가스 운반 분야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음.

2. 해운의 나라 그리스에 돌아온 바다의 신 포세이돈 - 세계 최대의 선박 박람회 Posidonia

○포시도니아(Posidonia) 박람회는 그리스에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선박 박람회임. 유명한 언론인이며 경영인인 Vokos의 주창에 의해 시작됨. 그리스 신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이름을 따서 Posidonia라는 이름으로 1969년 제 1회 선박 박람회 개최함.

○이 박람회는 직접 파급 효과(4천만 유로)와 함께 그리스 해운 산업과 국가 이미지 홍보, 관광 산업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옴으로 그리스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2006년 6월 초에 개최된 포시도니아 박람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총 72개국의 1,600여개사 참가했으며 방문객수도 1만 6천여 명을 상회함.

3. 그리스 관광의 매력(Live your myth in Greece)

○그리스는 고대 유적지 뿐 아니라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성지들로 인해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리스를 방문함. 관광산업이 GDP의 17-18%이고 약 70만 명이 관광산업에 고용됨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19%를 차지함.

○2004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이미지를 심음으로 관광 산업의 붐을 이루고 있음. 특히 관광 홍보 슬로건 “신화와 함께 생활 한다”(Live your myth in Greece)를 적극 활용함으로 2005년 이후 13%이상의 관광객이 증가되었음. 그리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신화를 접목시킨 이 홍보활동들은 외국 관광객들 유치에 크게 기여함.

4. 인류의 문화유산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조각품 재통합 운동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임. 이 신전의 대리석 조각품 중 55%는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아테네는 40%, 그리고 나머지 5% 정도가 세계의 8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그리스는 터키로부터 독립한 후 지속적으로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품 반환을 요구했으며, 1982년 멜리나 메르쿠리 문화부 장관 때 더욱 본격화됨. 민간 차원에서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 15개국에서 파르테논 마블 반환 국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

○그리스 정부는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2007년 3월 완공 예정)을 신축하여 파르테논 신전 유물을 실제 모습과 동일하게 배열 전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5. 400년 식민 지배의 역사적 잔재와 영토분쟁을 넘어서 - 터키와 새로운 협력관계

○그리스와 터키는 1949년 이래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창립회원 동맹국이지만 민족적 감정, 영토 분쟁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400년간 터키의 식민 지배와 1921-22 그리스-터키 전쟁 등을 겪으며 그리스인들은 터키에 대해 강한 역사적 앙금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터키의 EU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1999년 Simitis 수상 정부 당시 터키의 EU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고, 2005년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지지함. 터키에 대한 그리스의 이런 결단은 지구 공동체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높이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6. 해외 거주 그리스인(Diaspora)의 애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 해외 이민자들의 수는 그리스 안에서 살고 있는 인구와 맞먹는 약 7백만 명 정도임. 이중 미국에 약 3백만이 거주함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그 외 호주, 캐나다, 독일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이들은 터키의 지배와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떠난 자들임. 주로 상인, 공장의 직공, 건설 현장의 노동직 종사하였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노력함으로 세계 각 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특히 미국 거주 3백만의 그리스 계 인사들은 정치, 언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한국-그리스 관계

1. 그리스 참전 용사의 제2의 고향, 한국

○한국전에 파병을 갔던 그리스 군인은 연인원 1만여명을 웃돌고 있음. 지금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2500명이며 이중 1200명이 한국전 참전 용사회에 등록되어 있음. 1954년 한국전 참전용사회를 설립하여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전역에 12개소의 지회를 두고 있음.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있어 한국은 제 2의 고향임. 이들은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찬사를 보낼 뿐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함으로 제 2의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

2. 한국전에서 산화한 그리스 용사의 넋을 기리며

○한국전에서 산화한 그리스 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 정부와 그리스 정부 공동 주체로 2004년 6월 25일 아테네 인근 Papagos 시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건립함. 4개의 도리아 식 기둥과 제단이 있고 참전 기념비 양끝 날개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그리스 군인 186명의 명단을 새겨 넣은 4개의 대리석 판이 있음.

○아테네 시내 중심가 헌법광장에는 그리스군 전몰군인을 기리는 무명용사비가 있는데 그리스 군이 참전한 전쟁 중에 한국전도 명시되어 있음. 우리나라 경기도 여주에는 그리스군 한국전 참전비가 1974년 건립되어 그들의 넋을 기리고 있음.

3. 유럽대륙 동남단 발칸반도에 위치한 또 하나의 한반도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음.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지정학적 유사성과 국민소득 수준의 유사성 외에도 불행했던 식민지 경험 등이 그

러함. 또한 자유 수호의 보루로서 1946-49년간 공산세력과 내전을 치룬 것이나 1967-74년 군사정권 통치 경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듯함.

○그리스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간적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손님대접을 극진히 함.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또한 매우 높아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수학, 외국어 등 과외교육을 시키는 것이 보통임.

4. 그리스 해운 산업과 한국의 조선 산업의 만남, Win-Win 산업 협력

○그리스는 세계 제 1위의 해운국가로 그리스 선주가 보유한 배는 2005년 초 총 2,984척으로 세계 선박의 10%를 차지함. 2005년 그리스는 해운산업에서 연간 145억 유로의 수입을 올려 연간 무역 적자의 40%이상을 차감함.

○한국 조선업체는 지난 2003년 이후 선박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음. 2005년에 선박 수주량은 세계 35%를 점유했고 건조량도 세계 33.6%를 점유함.

○그리스의 세계 1위 해운산업과 우리나라의 세계 1위 조선산업의 만남은 양국의 전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Win-Win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1972년 그리스의 리바노스 사장과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의 인연이 이제는 이들의 설립한 기업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

5. 그리스인의 생활필수품이 된 한국 상품

○그리스인들의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내구성 소비제품은 자동차, 냉장고, TV, 에어컨 등의 제품을 들 수 있음.

○2005년도 한국산 자동차는 그리스 시장에서 14%의 신차 점유율을 기록함으로써 자동차 강국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음. 그리스내 전체 가전.통신 시장 규모는 약 20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이중 삼성, LG등 국내 가전업체가 약 2억 5천만 유로 상당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12-13%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04년 올림픽 경기에서 스폰서쉽을 통해 이룬 판촉활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2006년 6월13-17일까지 유럽문화수도 행사가 그리스 제3의 도시 Patras에서 개최될 때 우리 한국 상품 전시회가 이루어짐으로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함.

6. 2004 아테네 올림픽 성공과 한국의 기여

○그리스는 2004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로서 영광을 재현했고 전 세계에 그리스의 새로운 모습을 각인시킴. 또한 전반적인 시설이 개선됨으로 올림픽 후 그리스인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됨.

- 우리나라는 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 한편 현대자동차는 아테네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중대형차를 기증하였고, 삼성전자는 올림피아 성화 봉송비용을 지원함.

7. Patras 2006 유럽문화수도 행사와 Dynamic Korea

○ 유럽문화수도행사는 엘리나 메르쿠리 그리스 문화부장관의 이니셔티브로 1985년 EU 각료 이사회에 의해 출범함. 유럽문화수도로 일정한 도시를 지정, 각종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유럽통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임.

○ 1985년 그리스 아테네가 제1차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이래 매년 1-2개의 유럽연합회원국 도시를 지정 유럽문화수도행사 개최하고 있음. 2006년 유럽문화수도인 파트라스 시는 각종 문화교류행사를 통해 유럽 시민들 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함.

○ 주 그리스 대사관은 “Patras 2006 유럽문화수도” 행사 계기를 활용 6월 13-17일에 최신 선박모형, 첨단 IT제품, 자동차, 관광 등 한국 종합전시회와 한국 전통무용 공연을 성대하게 개최함으로 Dynamic Korea라는 이미지를 심음.